보물하나님도 티끌모아 태산

(마태복음 6:19~3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보물하나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보물하나님도 티끌모아 태산'
나의 보물은 하나님뿐이십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하나님을 모으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을 요약해보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 하나가 다 그러하듯이 오늘의 이 말씀도 마치 대헌장 같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주전과 주후로 나뉘듯이 예수님의 이 선언과 함께 우리의 인생도 근본적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보물을 찾아 헤매며 살던 시대가 지나가고 보물을 쌓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는 말씀에서 보물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사실 지구상의 75억 사람들 중에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물을 찾는 과정을 누락시키시고 곧바로 보물을 쌓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찾거나 획득하는 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75억 명 모든 사람에게 이 보물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산더미처럼 주어져있는 보물을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에 쌓기만 하면 됩니다. 보물을 쌓는다는 것은 사후에 대한 대비가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상상도 못하는 증거와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 사건이고 정말로 좋은 이유는 이제 보물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찾고 지키기 위해서 보초를 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보물은 쌓는 과정만 있고 쌓아도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함으로써

반드시 실천해야만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19절에서 34절까지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가 됩니다. 본문에는 성한 눈과 나쁜 눈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촉구도 나타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오고 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독립적인 주제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만 사실 하나의 큰 맥락에서 보자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씀에 함축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말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제거해보기로 합니다. 보물이라고 하니 이것을 세상적인 의미로 생각해서 돈이나 재물을 염두에 둡니다. 물론 이것은 땅에 쌓아두는 보물로써의 의미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것은 이러한 세상적인 재화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구제나 선교 혹은 교회에 헌금하는 것을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돈을 비롯한 재물이 맞습니다. 좀과 동록이 해한다고 하였으니 그 옛날에는 귀한 옷이나 동전도 보물로 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둑들이 탐하는 가치도 이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하면 그로인해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하늘에 쌓는 보물은 돈이나 재물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을 보면 부자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보화라는 헬라어 단어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보물과 똑같은 단어인 데사우로스(θησαυρός)입니다.

여기서 부자청년과 예수님의 대화의 맥락에서 보자면 기존의 이해가 맞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셨으니 구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배경을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부자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으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확신을 간접적으로 지적하시며 "네가 선한 일을 할 테면 해보라"는 심정으로 구제에 대한 언급을 하신 것이지 정말로 구제가 구원과 직결되는 진리는 아닙니다.

구제와 구원이 직결된다면 이 구원은 만민에게 주어질 수도 없습니다. 부자 즉 세상적인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함으로써 하늘에도 보물을 쌓을 수 있다면, 구제받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에 보물을 쌓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하늘에서도 가난하게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천국은 결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부자는 구제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못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었고, 나사로는 살면서 구제를 못해도 천국에 갔지만 여전히 거지였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하여 누가복음에 나타난 병행구절을 보면 12장 33절에서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도 구제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표면적으로만 이해하여 구제를 비롯한 선행이 곧 하늘에 보물을 쌓는 일이라 여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표면적 해석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하는 근본적 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듯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는 배낭을 만들라는 말씀에 유의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6장 17~19절에서 구제를 강조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중심된 문장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7절 하반부를 보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나머지 18~19절에서 강조된 구제에 대한 이해도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늘에 쌓는 보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1절에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네 마음이 가 있는 대상이 너의 보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보물로 번역된 데사우로스(θησαυρός)가 사용된 다른 용례를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데사우로스가 보화로 번역되었고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데사우로스는 보배로 번역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이나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조들에게 묻는다면 그들이 하늘의 보물로 여긴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8절에서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보물로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산 아래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고 그곳에 머무르기만을 바라게 되었을 때에 베드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3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를 표현하며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을 통해 보게 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느낌을 표현하기에 합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알고 있던 모든 보석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물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면 하나님이 보물이라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1장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납니다. 26절에는 하나님과 천국에 대한 환상을 보며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라고 하였고 28절에서는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 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 또한 하나님을 보물로 여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또한 없다는 말을 여섯 번이나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하바국 선지자에게 보물은 당연히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보물은 구제나 선행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에 쌓아야 할 보물도 하나님 자신을 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보물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보물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땅에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물로 하늘에 쌓을 수 있다는 것일까요?
이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예를 들어봅니다. 5만 원짜리 지폐로 1조 원을 트럭에 싣기 위해서는 모르긴 몰라도 트럭 몇 대는 필요할 것입니다. 1조 원이 이 정도인데 수 천 조원을 현금으로 쌓아둔다면 그 양은 정말 산더미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저 가져다 쓰라는 광고가 붙었다고 생각해봅시다. 다만 맨손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이제 이것을 옮기기 위해 평생 직업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이 광고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자기 것으로 충분히 가질 만큼 보물로서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우주가 무한한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무한하신 하나님은 찾아다녀야 하는 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보물이기 때문입니

다. 이제부터는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에 쌓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쌓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하늘로 보냄으로써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보물임을 믿고 그 하나님을 가지기 위해 마음을 하늘로 보내면, 하늘에 있는 내 명의의 곳간에는 하나님이 쌓입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올려 보낸 만큼 하나님을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보물로 믿느냐는 것입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의 의미가 이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물로 믿는다면 마음이 하늘로 갈 것이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보물로 믿는다면 마음은 땅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님들도 땅에서 보물을 찾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해서 성도가 늘어나는 것을 보물로 여깁니다. 목사님들부터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대해서도 돈이나 재물로 구제를 하면 하늘에 보물이 쌓인다는 식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교회나 선교를 위해 헌금을 많이 하면 하늘에 보화가 쌓인다는 식의 공로사상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결코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보물을 쌓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보물로써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대로 마음이 하늘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지속적으로 올려 보낼 때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나의 명의로 조금씩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하나님을 갖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갖는다는 것은 곧 친하다는 의미입니다. 아주 친한 사람도 있고 조금 친한 사람도 있고 전혀 친하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함은 삶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빌게이츠와 친하다면 여러분을 빌게이츠에게 소개시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 밤중에 전화를 해서 반갑게 인사하고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울까요? 이러한 친함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짐도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가시다 밤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뒤집히게 생겼는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며 난리가 났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예수님의 몸도 물이 튀는 정도를 넘어 젖고 잠기게 되었을 텐데 대체 어떻게 주무셨다는 것인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시며 깨셔서 오히려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다며 책망하셨습니다. 대체 무슨 믿음이 적다는 것일까요?
제자들은 하늘의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려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과 전혀 친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하나이셨으며 이 땅에 오셔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다 보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친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신 예수님은 풍랑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시거나 두려워하실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9~34절을 보면 염려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 자의 특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가진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직접 드신 예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의 모습이 단적으로 제시됩니다. 26~28절에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고 하셨고 31~32절에서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해 본적이 없고 하늘에 쌓아 둔적이 없고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지 않으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자면 예수님이 야말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먹을 걱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염려하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적다고 책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때와 똑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도 묻고 계십니다. 믿음은 곧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이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못하여 마음을 하늘로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로 가지 못하니 하나님을 가질 수도 없고 친해질 수도 없습니다. 그 결과 삶에서는 염려가 증거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지 못한 증거가 나타나는 이방인과 같은 삶의 모습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선택하지 않으신 자들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는 세상을 걱정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도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 외의 다른 증거가 아닙니다. 보물이신 하나님을 내 명의로 많이 쌓아둔 자의 특징은 세상일에 대해서 염려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처해있는 상황이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믿는 자들의 처지가 더 급박하고 나빠서 이제 저 사람은 죽겠다 싶을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물이신 하나님을 많이 가졌다면 그러한 상황이 염려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 주님이 주무시는 것은 상식적으로는 미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이상하게 느끼셨습니다. 여러분도 어느 편인가에 속해있을 것입니다. 같은 배에 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반응이 달랐듯이 가족으로써 같은 상황에 처해있어도 반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서 하늘 곳간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었다면 그 증거로 염려가 사라집니다.

이러한 믿음과 연관하여 본문 22~23절에서는 눈에 대한 비유가 이어져서 나타납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눈을 몸의 창문과 같이 여겨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보는 마음의 시선이 성한 눈입니다. 반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을 보물로 보는 마음의 시선을 가졌다면 어두운 눈입니다. 보물은 마음에 빛을 발하는 대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흑자가 빛을 발합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의 형통이 빛을 발합니다. 건강이 빛을 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빛나는 대상을 보물로 여기게 됩니다. 보물이 아닌 것을 보물로 보게 된 결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풍랑처럼 여기며 걱정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반면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믿고 인정할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은 점점 밝아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성도들은 소아시아 안디옥까지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집과 전토를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으니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이들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가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물로 삼고 있었기에 잃은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보물 이외의 것을 잃어버렸을 뿐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 드리기를 계속했고 하늘의 곳간에는 그분들의 명의에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계속 쌓였습니다. 안디옥까지 쫓겨 가서 노숙자처럼 살면서도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를 걱정하기는커녕 오직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는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인 것을 믿었고 마음을 하늘로 올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곳간에 하나님을 보물로 많이 쌓아둠으로써, 집과 전토를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염려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친해졌던 것입니다. 이것이 밝은 눈을 가진 기독교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보물을 찾고자 하는 어두운 눈을 가지고 있다면 삶은 걱정과 염려의 정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글을 뚫고 나가자니 사방이 긁히고 풍토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걱정과 염려의 융단폭격을 맞게 됩니다.

눈의 비유에 이어서 24절에서는 두 주인에 대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두 주인은 재물과 하나님이라는 두 보물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 대상을 동시에 추구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보내지게 되면 나머지는 그 첫 번째 대상에 복속됩니다. 아침에 배우자와 싸우고 출근한 사람은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상사를 대할 때에도 기분이 나쁘고, 부하를 대할 때에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지어졌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을 보낼 대상은 항상 하나입니다. 이는 재물과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재물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사람마다 보물은 다를 수 있지만 재물이 가장 보편적인 보물로 여겨지는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나인 성 과부에게는 독자가 보물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보물이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보물인 재물과 하나님에게 동시에 마음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선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선택하면 밝은 눈을 갖게 되어서 삶에서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을 보물로 선택하게 된다면 보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없는 걱정과 염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기는커녕 항상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기는커녕 쉬지 않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범사에 감사하기는커녕 범사에 불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걱정과 염려는 진실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이어지는 2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시고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염려는 곧 하나님을 보물로 여기지 않는 이방인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러한 염려를 악으로 여기십니다. 3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일을 주실지 안 주실지 모릅니다. 다만 내일을 주신다면 내일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준비되어 있을 것이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믿음은 곧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많이 갖는 하나님과의 친함의 증거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시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을 친하게 느끼시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체적인 일들을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삶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친하다면 내일을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고 말씀하실 때의 괴로움이란 헬라어 카키아(κακία)로서 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나의 악함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괴로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물인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 바로 악입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이 목회 현장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 악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 교인 숫자, 재정문제, 장로님들과의 타협을 하나님보다 우선하여 바라보는 동안 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을 보물로 믿는다면 마음은 목회 현장을 떠나서 하늘로 가야만 합니다. 사업하는 장로님이라면 사업장에서 마음이 떠나 하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보내지 않는다면 입으로 하는 모든 신앙고백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사업장에 남겨놓는다면 사업으로 생겨난 과제를 헤쳐 나가는 것이 삶의 과제가 되어버립니다. 목사님들도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들로 인한 걱정과 염려를 이겨나가는 것이 목회의 목적이 되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겨낸다 할지라도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마주하게 될 뿐입니다. 삶의 걱정과 염려는 전부 하나님을 보물로 생각하지 않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원죄가 지속되어서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지는 것들에 대해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마음이 육신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이방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출발하지만 선민의 차이점은 돌이킴에 있습니다. 돈 때문에 걱정과 염려를 지속할수록 마음이 소모됨을 알고, 하나님이 보물이심을 안다면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만 합니다. 돈 걱정하는 만큼의 마음을 하늘로 돌이켜서 그 만큼 하나님을 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물하나님도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걱정과 염려거리는 생겨납니다. 돈이 들어갈 곳은 많은데 가진 것은 없습니다. 자녀에 대한 걱정도 생기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민이라면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물임을 알고 보물이 있는 하늘로 마음을 보내고자 합니다. 하루에도 백 가지 천 가지 걱정으로 소모되는 마음을 모아서 하늘로 보내야만 합니다.

걱정과 염려를 지속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물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의 삶을 지속하려거든 그렇게 계속 살아가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마음의 소모를 멈추고 마음을 하늘로 보내야만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원죄의 죄악 때문에 보는 대로 듣는 대로 만지는 대로 마음을 땅에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

니라'는 말씀대로 기대하는 대상에게 마음이 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하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대해 죽었다고 고백한다면 남은 삶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이때에 우리가 남기는 유언이 주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하신 기도를 풀어보면 "나는 이제 보물을 찾아 하늘로 갑니다. 내 마음이 떠난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바가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라고 유언기도를 함으로써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티끌을 모으듯이 마음을 모아 하늘로 보내면 어느덧 걱정과 염려가 사라진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삶에 풍랑이 일어도 주님께서 주무셨던 것처럼 평온합니다. 안디옥으로 쫓겨 간 그리스도인들처럼 먹을 것 입을 것이 풍족하지 않지만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티끌을 모으듯 하루에도 백 번 천 번이라도 십자가에서 죽으며 유언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유일하게 하늘을 향하는 길입니다. 이 길 외에는 하늘을 향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티끌모아 태산을 이루듯 마음을 하늘로 보낼 때에 하나님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돈 걱정 하던 마음을 회수해서 하늘로 보내면 그 마음의 크기대로 하나님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사업 걱정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안 되고 건강이 안 좋더라도 우선은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유언기도를 함으로써, 내 보물을 찾아 마음을 하늘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에 들어갈 뻔 했던 마음, 건강 문제에 들어갈 뻔 했던 마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담아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보물이신 하나님을 쌓기를 반복하면 어느덧 삶에서는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뿐입니다. 그동안 십자가를 붙잡지 못한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나의 보물이 되신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마구잡이로 마음이 소모되는 것을 아까운 줄도 몰랐습니다.
누가복음의 말씀대로 이 모든 마음이 하나님을 모셔 들일 수 있는 배낭이 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구제로 강조된 이유는 마음이 세상의 가치를 소유함에 소모되고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음의 소유물을 빼내는 한 방편으로 구제를 제시하신 것이고, 돈에 대해서 죽을 때에 나타나는 한 양상을 표현한 것입니다.
부자청년의 일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의 구제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소유에 대해 죽어야만 합니다. 소유에 소모될 마음이 하늘로 돌아간 만큼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소유에 하나님 나라와 의가 임하게

되고 없는 사람에게도 베푸는 진정한 의미의 구제도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물찾기가 아니라 보물 쌓기입니다. 이러한 삶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티끌 같은 마음도 세상에 버려지지 않도록 끌어 모아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안에 보내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늘에서 내 명의의 창고에 보물이신 하나님을 쌓아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땅에서의 삶에서 모든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의 보물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끌려가는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가져야 하는 마음을 잃었던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이 길을 통하여 우리 마음의 티끌까지라도 하늘로 보내게 하여주시옵소서. 티끌 모아 태산인 보물이신 하나님을 가득 가득 갖는 부자들이 되게 하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